

일본인이 쓴 구한말 비운의 역사 쓰노다 후사코의 「민비암살」

— 교사 文承俊씨

지금 독서중

서울 영남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文承俊씨(36)의 책에 대한 애착은 남달리 강하다. 열흘에

두권쯤은 읽는다고 하는데, 국어교사이면서도 물리나 심령과학서적까지 폭넓게 그야말로 다치는대로 독서한다. 요즘은 그의 관심이 조선말의 역사에 가 있어 이 방면 책을 보는 중. 특히 일본인 쓰노다 후사코가 쓴 「민비암살」(김은숙 옮김, 조선일보사)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고 한다.

“1895년 민비가 일본인들의 계략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르포르쉴로 쓴 책입니다. 중학생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민비라는 인물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새삼 느꼈어요. 일본인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전개과정을 영화보듯 소상하게 일러줍니다.”

민비의 암살은 당시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이 자국의 이해를 위해 벌인 암투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다. 이 책의 저자는 일반독자가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별 무리가 없도록 광범한 자료를 동원해 구한말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민비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점이나 대원군과의 대립관계 뿐만 아니라 당시 지식인들의 행적을 실증적으로 적었습니다. 전문적인 학술서나 연구서들이 일반 독자를 지레 겁먹게 하거나, 아니면 근거를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역사소설류가 시중엔 많은데, 양자를 지양한 이런 류의 책을 좋아합니다.”

책의 내용에서도 물론 얻을 점이 많았지만 문승준씨가 특히 이 책의 장점으로 꼽고

있는 것이 저자의 이야기 구술능력. 딱딱한 연구서와 가벼운 소설 따위의 간극을 메워 줄 중간정도의 무게를 가진 이만한 책이 우리에게 너무 적지않느냐고 한다.

“우리에게 그런 책이 적은 것은 어려웠던 역사 탓인지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누구누구는 언제 태어나 무슨 벼슬을 했고 업적은 무엇이고 언제 죽었다는 식의 백과사전적 기록밖에 없습니다. 일기나 전기들처럼 생동감있는 자료들이 적다는 것이죠. 저자가 일본인이면서도 한일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도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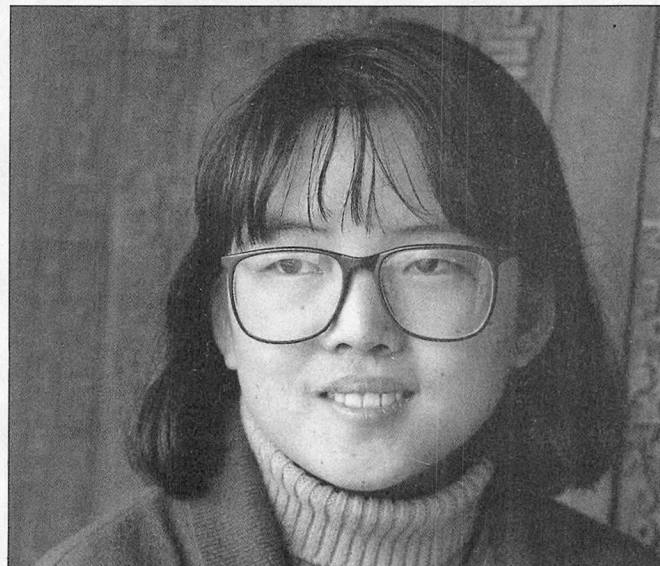
문승준씨가 독서를 하면서 관심을 갖는 점은 인간. 인간의 생리구조나 정신구조에서 불가사의한 행동을 해명한 책 등 인간에 대한 지식을 관심있게 읽는다.

“얼마전에 소설집작을 하나 해봤는데, 소설가이자 개화파로 지식의 첨단에 섰던 이인적이 시대의 반역자로 변모하는 과정을 썼죠. 지식인이 갖는 갈등과 방향에 맞추어 제 나름대로 이인적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역사소설 중에서는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나 최인호의 「잃어버린 왕국」, 문순태의 「동학기행」과 같이 ‘발로 쓰는’ 역사소설을 좋아한다는 그는 그래서인지 얼마전 일본여행을 하면서 이인적의 행로를 추적해보기도 했다고 말한다.

방학을 맞은 요즘 더 많은 책과 ‘글쓰는 부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古典보다 현실과 맞물린 책을 더 권하고 싶다고 밝힌다.

— 홍현숙 기자



밀교적 형식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 이청준 소설집 「秘火密教」

— 카피라이터 장성희씨

지금 독서중

현대사회는 가히 광고의 시대라고 할 만하다. 그렇지만 광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또는 그 반대방향에서 광고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장성희씨(24·MAC카피라이터).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어요. 아직도 시를 쓰는 문학도지만 시보다는 현실에 더 충실할 예정이에요. 물론 카피라이터로서 양담배와 술, 혹은 호화모피 같은 상품광고문안을 작성할 때 전혀 괴로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러한 이상과 현실을 어떻게 가장 잘 화해롭게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가 영원한 과제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시가 현실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현실에서 시를 추방할 수 있는 것일까? 문학도라서 그런지, 이제는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참여문학이나 순수문학, 그 어느 경향에도 치우치지 않고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그녀가 요즘 읽고 있는 책도 꽤 중후해 보였다.

“李清俊씨의 「秘火密教」을 읽고 있어요. 씨는 이 소설에서 해마다 선달 그믐날마다 은밀하게 행해져 오고 있는 밀교의 풍습을 다루고 있어요. 일제하의 東拓설립에 따른 자가농지신고 때, 식민통치 말기의 정용병 발동 때, 또는 사일구 바로 전 해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때마다 그 祭儀의식은 절정에 다다르게 되고, 그때마다 어떤 소망과 갈등의 해소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효용성을 잃게 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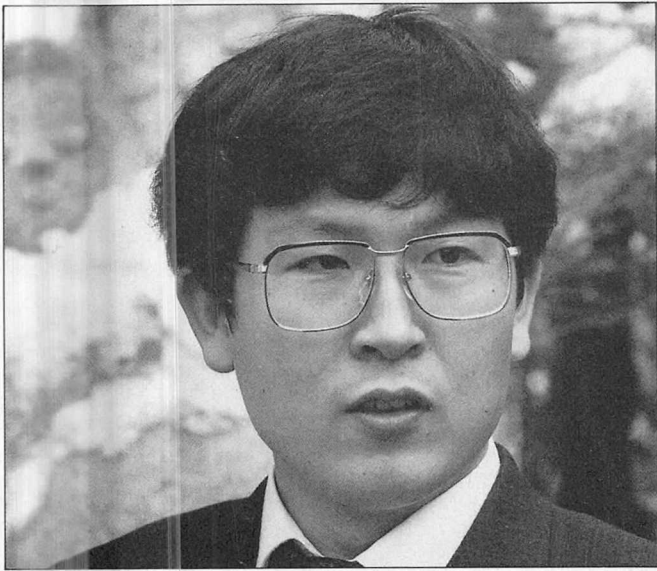
제의의식의 비극적인 과정을 간절한 안타까움으로 형상화한 것 같아요.”

흔히 이청준씨의 소설이 지나치게 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시대적 당위가 요청하는 경직성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대중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독자들의 경박성 탓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종교적 광신자들과 정치적 열광주의자들에 대한 한마디도 잊지 않는다.

“밀교의 중요성은 가시화되지 않고 숨어서 흐르는 힘인데, 그 물질을 본질적으로 가시화시켜 현실적인 변혁의 힘으로 대체하려는데서 그 비극의 싹이 움트지요. 그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藏火臺에서 성급하게 햇불춤을 추던 젊은이들처럼, 그들은 종교적으로 광신자들이거나 정치적으로 열광주의자들일 뿐이에요.”

이청준씨의 소설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주로 문학 자체에 대한 그의 집요한 질문 때문이라고 장성희씨는 말한다. 「당신들의 天國」이나 「춤추는 司祭」에서 보여줬듯이 문학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그 질문 자체는 성급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절실할 수도 있고, 그 밀교적 형식을 통해 ‘우리들의 숨어기다리는 힘의 소중함’이나, 혹은 사랑과 용서와 화해에 대한 방법적인 모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반경환 기자



재담으로 풀어 쓴 한국경제의 현실 정운영의 「광대의 경제학」

— 회사원 朴柄旭씨

지금 독서중

대학에서 '양반의 경제학'을 공부한 朴柄旭씨(30·현대증권 기획실)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정운영의 「광대의 경제학」(까치)이다. 한겨레신문을 통해 저자의 글을 접한 많은 젊은이들이 그에게 매료되었듯이, 박병욱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한권의 책으로 정운영씨의 글들이 묶이니까 그의 사상을 더 확연하게 볼 수 있더군요. 「광대의 경제학」은 저자가 자신의 경제학을 일컫는 말인데, 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이 워낙 까다롭고 난해해서 공부하기 힘든 학문이고 일반인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되기 쉽거든요. 일례로 일반신문의 경제면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어요?”

수없이 많은 도표와 그래프, 방정식을 동원해 정교한 경제이론을 도출시키는 '양반의 경제학'에 반해 세상 살림살이에 대해 쉬운 말로 주절거리는 '광대의 푸념'이라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아는 자들만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경제학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는 점 말고도 '양반'의 입이 아닌 '광대'의 입으로 이야기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경제성장의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는 노동현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밝은 향해 외쳐주지요. 우리경제현실을 그때그때 벌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민중적인 시각으로 노출시킨다고 할 수 있어요. '구호성' 분석을 벗어나지 못하는 운동권의 분석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이책에 수록된 첫번째 글인 '경제학을 공부하려는 J양에게'에서 저자는 경제학을

‘밥과 사람의 관계를 따지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거기에 내재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밝히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책이 ‘광대’의 경제학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박병욱씨는 이렇게 보았다.

“한마디로 유려한 문체 때문입니다. 광대의 재담과 익살은 보는 이의 신명을 돋구는 법이죠.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점들을 참신한 발상으로 깨고 있고, 특유의 비아냥거림, 은유를 구사하면서도 격이 떨어지지 않지요.”

박병욱씨는 저자의 글이 하나의 통일된 구조로 탄탄히 엮여져 있음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 하고 싶은 말에 적절한 예를 동원하여 긴밀한 유기적 구조를 이루어 읽는 사람들을 긴장시킨다고.

“또, 한편의 글에 적어도 서너권의 책을 인용하리만치 박학함은 부럽게 생각하지만, 때론 현학적인 뉘새로 거리감을 갖게 합니다.”

저자의 가장 멋진 점은 아무래도 자기 일에 대한 강한 정열이라고 박병욱씨는 덧붙인다.

“저는 자신이 세운 목표에 대해선 집요하게 추진하는, 다시 말해 성취도가 높은 사람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일말의 회의도 없을 수야 없지만 자기실현이란 게 그것 아니겠어요?”

아직 신혼초인 박병욱씨는 맞벌이 부부. 자신처럼 아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사일엔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건네주는 그의 말이다.

— 홍현숙 기자



더럽혀졌기에 아름다워진 이야기 권인숙씨의 「하나의 벽을 넘어서」

— 잡지기자 南美慶씨

지금 독서중

눈에 피어 있는 연꽃이 상징하는 종교적 의미는 타락한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초월의 의지'가 아니라, 현실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해탈의 의지'이다. 이즈음 권인숙씨의 자전적 수기 「하나의 벽을 넘어서」(거름, 1989)를 읽은 남미경씨(월간 「주식전략」 기자·26)는 바로 그러한 종교적 각성을 되뇌게 되었다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영원히 아름다워진 한 여성의 진솔한 자기고백이 읽는이를 시종 압도합니다. 경악스러운 고문사건에 대한 분노는 오히려 가라앉혀 주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의 모순점을 꼼꼼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이죠.”

언제부터인가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기억이 없어졌다는 남미경씨는 그러나 이 책은 시대에 대한 방관을 참회하는 눈물없이 읽을 수 없다고. 특히, 권인숙씨가 구치소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중 동료와 함께 나눈 사소한 이야기가 남미경씨의 눈물샘을 기어이 건드리고 말았다고 한다.

“단식이 끝나면 제일 먼저 커피와 과자를 먹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하등 다를바 없는 감수성을 가진 여성이 타락한 권력과 어떻게 홀로 싸울 수 있었는지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엄습해 왔습니다.”

변수가 많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좌충우충'을 두지 않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주식전략」에서 남미경씨가 맡고 있는 분야는 주식동향분석. 현실적으로 증산층

정도의 계층이 정당하게 부를 증식시키는 방법으로 주식투자가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자종목이라고 말하는 남미경씨는,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일이 혹 또 '하나의 벽'을 쌓는 일은 아닌가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매일 들여다보는 주식시세표가 권인숙씨를 외면했던 벽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뒤쫓고자 하는 소시민의식이 우리사회가 아직 허물지 못하고 있는 이념과 계층의 벽을 존속시키는 주범이라고 반성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책에는 '부천서사건'만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운동권'이 되게 된 배경과 자신이 직접 체험한 노동현장이 그려져 있는데, 남미경씨는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최대현안은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배'에 있음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우리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널리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통해서 결코 극복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특히, 노사분규가 주식동향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에 대해 남미경씨는 자신의 '현장체험'을 근거로 강하게 부정했다.

90년대라는 새로운 연대에는 우리사회의 모든 갈등의 '벽'이 허물어지길 기원한다는 남미경씨는 새 삶을 살고 있는 권인숙씨의 행복을 위해 천주님께 기도드리겠다고 말했다.

— 이관우 기자